

Issue Comment

2025. 10. 2

LG 화학 051910

자회사 지분 담보로 유동성 확보

이차전지/석유화학

Analyst 노우호

02. 6454-4867

wooho.rho@meritz.co.kr

Event

전일 LG화학은 상장 자회사 LGES 주식을 담보로 PRS(Price Return Swap) 계약으로 약 2조원의 유동성 확보 계획을 공시. 당사는 전일 자회사 LGES 보통주 증가(34.7만원) 기준으로 3년만기 575만주(총 1.99조원)를 매각, 이후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79.4%로 변화. 주식 처분 대금 납입일은 11/3

2025년 연중 LG화학은 악화된 재무 여건에 (1) 수처리 필터 사업부 1.4조원 매각, (2) 자회사 LGES 주식담보로 1.4조원 규모의 외화교환사채(EB) 발행, (3) 자회사 LGES 주식담보로 2조원 PRS 계약으로 유동성 확보 전략을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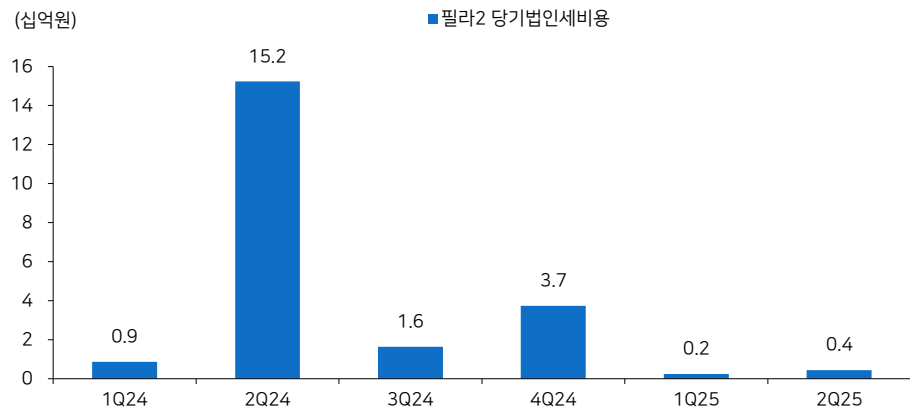
View

자회사 LGES 지분활용 이후 (1)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경감, (2) 차입금 상환의 긍정적 요인 기대 가능. 2024년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산업규칙(IIR, 각 저율구성기업에 귀속되는 추가세액을 모기업이 보유한 지분율만큼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됨. 해당 원칙은 Top-down 방법으로 최종 모기업에서 차상위 모기업으로 과세대상이 전이됨. 단, 예외대상은 최종 모기업이 차상위 모기업 혹은 해당 주체에 대한 지분율 80% 하회 시, 납세 의무가 완화됨. LG화학은 이번 자회사 지분처분으로 2025년 누적 3개분기에 해당하는 최저한세만을 2026년에 납부할 가능성 높아졌고, 과세 부담 경감될 가능성은 긍정적. 이후 LGES의 해외 자회사들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부담은 차상위 모회사 원칙 적용으로 LGES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됨.

또한 LG화학은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 110.7%(순차입금 비율 52.5%)로 재무건전성 훼손 속도 가속화. 연중 확보한 유동성으로 차입금 상환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어 극단적 재무 Risk 발생 가능성 낮아져

연중 동사의 주가가 저점 대비 상승한 배경은 시장이 기대했던 자회사 주식처분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개연성이 한 몫했음. 향후 주가 변동성 요인은 결국 펀더멘털이 중요. 주요 사업부 석유화학 및 전지소재부분의 비관적 영업환경은 지속됨.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석유화학 업황은 당장 개선될 여지가 적은 편. 또한 전지소재 양극재 사업은 전기차 여건 악화 영향과 Captive향 출하량 감소 장기화 조짐에 당장 2026년 반등 가능성을 쉽게 도출하기 어려움. 현재 투자자의 견 상향 여력 낮은 상황

그림1 LG화학의 분기별 필라2 당기법인세 인식 비용



주: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에 기초하여 인식(4Q24 제외). 1Q와 3Q는 당분기, 2Q는 당반기, 4Q는 당기 기준

자료: LG화학,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